

02 고등학교 고르기

학생 수가 내신을 정합니다

규모와 등급의 산술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진짜 위험한 자리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5등급제 비율** — 1등급 10% · 2등급 34% · 3등급 66% (9등급제 4%와 헷갈리면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 ◆ **수강자 수별 등급 인원 표** — 10명부터 300명까지
- ◆ **진짜 위험한 것은 학교 크기가 아니라 과목 크기** — 수강자 10명이면 1등급은 한 명
- ◆ **고교학점제가 이 일을 늘리는 까닭 · 상대평가인지 확인하는 법**

01 · 숫자부터

등급은 비율로 나옵니다

「전교생이 많은 학교가 내신 따기 유리하대요.」

널리 도는 말이고,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왜 그런지를 알면 어디서 그 말이 틀리는지도 보입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산술입니다.

2025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입니다. 등급은 비율로 나옵니다.

등급	누적 비율	구간
1등급	상위 10%	상위 0~10%
2등급	누적 34%	11~34%
3등급	누적 66%	35~66%
4등급	누적 90%	67~90%
5등급	누적 100%	91~100%

비율이니까 학교가 크든 작든 「몇 %」는 같습니다. 그런데 「몇 명」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리는 것은 사람 수입니다.

주의 — 예전 9등급제는 1등급이 4%였습니다. 지금은 10%입니다. 둘을 섞으면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인터넷에 9등급제 기준 표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출처: 2028 대입개편 확정안 및 공개된 내신 등급 산출 기준. 2025년 고1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인원은 반올림·동점 처리로 달라집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같은 비율, 다른 사람 수

한 과목을 듣는 학생 수에 따라 등급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수강자	1등급	2등급까지	3등급까지	4등급까지
10명	1	3	7	9
15명	2	5	10	14
20명	2	7	13	18
30명	3	10	20	27
50명	5	17	33	45
80명	8	27	53	72
120명	12	41	79	108
200명	20	68	132	180
300명	30	102	198	270

이 표에서 큰 학교가 유리하다는 말의 뿌리가 보입니다. 300명이 듣는 과목에서는 **1등급이 30명**이고, 30명이 듣는 과목에서는 **3명**입니다.

그런데 「유리하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율은 같습니다. 300명 중 30명이나 30명 중 3명이나 둘 다 상위 10%입니다. 「내가 상위 10%에 드는가」는 학교 크기와 무관합니다.

그러면 왜 큰 학교가 유리하다고 할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 사람이 많으면 실력이 고르게 퍼집니다. 작은 학교는 **우연히 잘하는 학생이 몰릴** 수 있습니다. 30명 중에 아주 잘하는 학생이 다섯이면 **여섯째부터는 2등급**입니다. 300명이면 그런 쓸림이 평균으로 눌립니다.

둘 —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전학생 한 명이 등급을 바꿉니다.**

등급 인원은 5등급제 비율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해석은 저희 판단이며, 실제 등급은 동점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 진짜 위험한 자리

학교 크기보다 과목 크기

여기가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등급은 학교 전체가 아니라 「그 과목을 들은 사람」 안에서 나옵니다.

전교생이 300명이어도 그 과목을 열 명이 들으면 열 명 안에서 갑니다.

수강자	1등급 인원	무슨 뜻인가
8명	1명	한 명입니다
10명	1명	한 명입니다
12명	1명	한 명입니다
15명	2명	둘로 늘어납니다
25명	2명	—

수강자가 열 명 안팎이면 1등급이 한 명뿐입니다. 1등을 해야만 1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이 일을 늘립니다

과목을 골라 듣게 되면 수강자가 적은 과목이 늘어납니다. 특히 드물게 고르는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많은 학교」보다 「그 과목을 몇 명이 듣는가」가 실제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학교를 고를 때가 아니라 과목을 고를 때 걸립니다.

다만 제도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가는 자리가 있고, 일부 과목은 석차등급을 아예 안 매깁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 상대평가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평가 과목에서 수강자가 적은 것이 위험하고, 절대평가 과목은 그 걱정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내에서 그 구분을 확인하십시오.

등급 인원은 저희 계산입니다. 평가 방식(상대·절대)은 과목 구분에 따르며 제도가 바뀌는 중이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보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한 학년 학생 수를 봅니다	학교알리미
2	주요 과목은 대개 전원이 들습니다	거기서는 학년 크기가 곧 수강자
3	선택 과목은 몇 명이 듣는지 봅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내
4	그 과목이 상대평가인지 확인합니다	교육과정 안내

3번과 4번이 실제로 등급을 정합니다. 학교를 고를 때는 1번만 보시면 되고, 과목을 고를 때 3·4번이 걸립니다.

학교와 과목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한 학년이 몇 명 인가
- ☐ 1학년이 3학년보다 크게 줄지 않았는가
- ☐ 내가 들을 선택 과목 이 개설되는가
- ☐ 그 과목을 몇 명이 듣는가
- ☐ 그 과목이 상대평가인가 절대평가인가
- ☐ 1등급이 몇 명 인지 계산해 보았는가
- ☐ 5등급제 비율(1등급 10%)로 계산했는가
- ☐ 9등급제 표(1등급 4%)를 쓰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을 꼭 보십시오. 인터넷에 9등급제 기준 표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걸로 계산하면 등급 인원이 절반 이하로 나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찾아 옮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어디서나 같고, 옮긴 학교에서도 상위 10%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그리고 옮기면 친구·선생님·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 값이 등급 하나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학교를 고르는 것보다 과목을 고르는 것이 등급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학생 수와 등급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작은 학교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얻는 것도 있습니다.

잃는 것 — 앞서 본 대로 등급 인원이 적고, 한 명의 영향이 큼니다. 선택 과목이 적게 열려 **고를 폭도 좁습니다.**

얻는 것 — 선생님이 학생을 압니다. 그러면 **세특에 적힐 것이 생깁니다.** 앞서 다룬 대로 세특은 선생님이 관찰한 것을 적는 기록인데, 학생이 많으면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과 전형을 볼 것이냐 학종을 볼 것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등급이 중요하면 큰 학교, 서류가 중요하면 작은 학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전학을 가면 등급이 좋아지나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웬만한 학교에서도 **상위 10%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어떤지는 가 봐야 압니다.

그리고 **확실히 잃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등급은 그대로 남고, 새 학교의 **진도와 시험 방식에 적응하는 시간**이 듭니다. 선택 과목이 다르면 **이수 과목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급을 이유로 한 전학을 권하지 않습니다.** 전학이 맞는 경우는 **이사·통학·건강처럼 다른 이유가 있을 때**이고, 그때는 등급이 아니라 **이수 과목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등급은 **학교 크기가 아니라 그 과목을 들은 사람 수**에서 나옵니다. 수강자가 **열 명이면 1등급은 한 명**입니다.

이 자료의 등급 인원은 5등급제 비율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등급은 동점 처리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방식은 과목 구분과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뀌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특정 학교를 권하거나 성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